

* 모두들 맹목적으로 다투고
싸울 때 다른 길을 택해 가는
것이 제일 좋다.

- 108 자재어 중에서 -

세원소식지

www.sewonsa.com

*펴낸이 : 정 운
*편집인 : 유 진
*펴낸곳 : 세 원 사
*인 쇄 : 형제인쇄·광고

성도재일, 불성(佛性)을 깨우는 새해

정 운 (세원사 주지)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네 가지 기념일을 '불교의 4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일대에 따라 '탄생'은 음력 4월 8일이고, '출가'는 음력 2월 8일, '성도'는 음력 12월 8일이며, '열반'은 음력 2월 15일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마음에 새기고 불자로서 삶과 수행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다고 하여 '재일(齋日)'이라고 부릅니다.

성도재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 새벽별을 보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신 날입니다.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 즉,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삶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불교적 삶의 태도와 방식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지를 느끼게 하고 삶의 의미를 확장시켜 줍니다.

특히 성도재일은 보통 해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여서 더 뜻깊습니다. 이때 불교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부처님처럼 깨달음의 삶을 살겠다는 서원을 다지는 '새해맞이 깨달음 리추얼(ritual)'의 역할을 합니다. 또 다양한 수행 및 의식에 직접 참여해 신심을 다지고

선업(善業)을 쌓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불교를 흔히 마음의 종교 혹은 깨달음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보는 우리의 인생은 '고해(苦海)' 즉 고통의 바다입니다. 여기서 고통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바로 부처님께서 성도(成道) 후 다섯 비구에게 최초로 설법하신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입니다.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교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통찰과 여덟 가지 바른 길을 일상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갖가지 번뇌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해탈의 경지인 열반(涅槃)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성제 '고(苦)·집(集)·멸(滅)·도(道)'의 체계적 설명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 '괴로움' 문제와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출가 동기를 시작으로 직접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이자 일생에 걸쳐 중생에게 설하신 고귀한 법입니다.

특히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바르게 알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8가지 실제 수행 방법인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의



www.sewonsa.com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세원사 홈페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많은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수행 덕목은 바른 견해(正見), 바른 생각(正思惟), 바른 말(正語), 바른 행위(正業), 바른 생활(正命), 바른 노력(正精進), 바른 마음챙김(正念), 바른 선정(正定)입니다. 이 중에 첫째 정견과 관련하여 『잡아함경』 제28권 「사견정견경」에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팔정도에서 정견은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세상과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을 말합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얕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개인의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고, 깨달음과 실천 수행의 출발점으로써 진리를 향한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자로서 지혜와 자비를 모두 함양하는 길은 꾸준한 팔정도 실천과 연기법(緣起法)을 깨닫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괴로움의 불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인 ‘열반 성취’입니다. 그리고 연기법은 불교의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라는 구절로 표현됩니다.

현재 이 순간 모든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에 의해 형상을 갖추고 나온 것이어서 또 인연이 다하면 흩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과 행복의 본질을 바르게 아는 것은 실제 자신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과 행복이라는 양극단을 피하고 팔정도를 통해 ‘중도(中道)의 균형 잡힌’ 태도를 갖추어 마음의 평화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기법을 몸소 체득하는 일은 지혜와 자비를 함양하는 바탕이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행 정진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삶의 시련과 고난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정각(正覺)을 이루신 성도재일과 관련하여 불자가 꼭 알아야 할 불교의 핵심 교리 ‘사성제, 팔정도, 중도, 연기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여, 이러한 가르침을 서양의 관점으로 현대사회에 맞게 재해석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휴스턴 스미스(Huston Smith)는 종교학 분야의 고전으로 알려진 그의 저서인 『세계의 종교(The World's Religions)』에서 불교사상을 현대의 용어로 정리하여, ‘경험적(empirical), 과학적(scientific), 실천적(pragmatic), 정신치료(therapeutic), 심리학적(psychological), 평등주의(egalitarian), 개인의(individual)’ 종교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경험주의 및 과학적 접근’입니다.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리에 이르는 실증주의적 측면에 초점을 둡니다. 개인은 자기의 행동과 경험의 중요한 결정자로서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주체적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용주의 및 행동주의 접근’입니다. 불교는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실제적인 수행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초점화된 목적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불교에서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사성제와 팔정도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하고 실용적인 지침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치료 및 심리학적 접근’입니다. 불교는 삶의 근본적인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간화선, 명상, 마음챙김 기반 등의 실천적 수행을 통해 안전하게 고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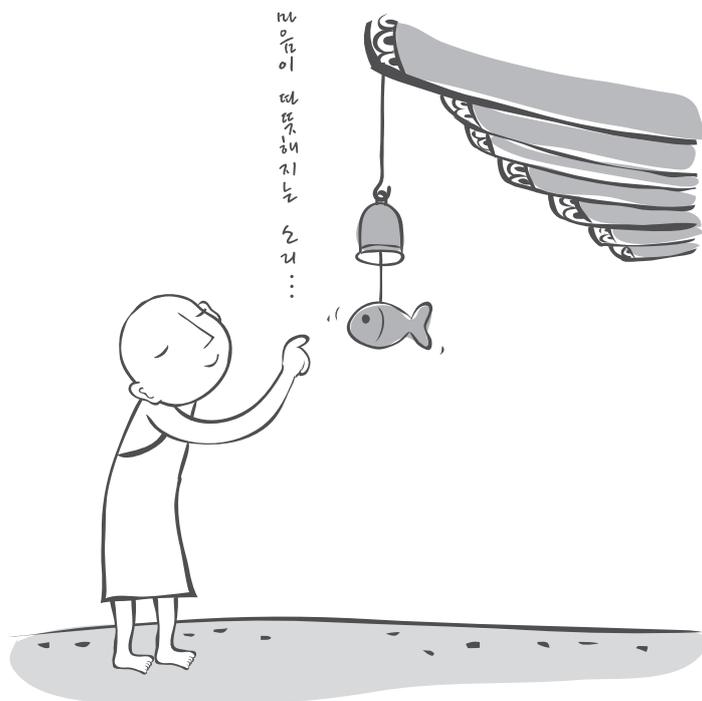
해소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현대심리학의 마음챙김 기반 심리치료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자신의 고통을 잘 다룰 줄 알고 참다운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 정진하는 일입니다. 다음의 『달라 이 라마의 행복론』에 마음 수행의 중요성과 자신이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행복이 달려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중생들이 겪는 고통의 근원인 삼독(三毒)과 무명(無明)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대자유인'이 될 수 있는 마음 수행을 강조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삶의 역경 속에서 당면한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바른 마음 수행을 통해 자력(自力)으로 해결할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상에서 연기법을 인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삶의 질'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성도재일에 되새겨야 할 것은 삶은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괴로움의 원인을 더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 분명 자신이 겪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 이를 위한 슬기로운 방법으로 '팔정도'를 일상에서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고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온갖 고통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고통을 다루는 실제적인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 불자들은 성도재일 '깨달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깨달음을 향한 팔정도 실천을 통해 삶이 더 평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





세원소식

후원금 현황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지출	
박순애	30,000	김기철	10,000	보령시한국청소년연합회	1,500,000
이장희	50,000	서동창	10,000		
이주연	20,000	이정옥	50,000		
강상훈	20,000	이건림	20,000		
부성보	50,000	광명전기	50,000		
이용렬	50,000	이경화	50,000		
아이리스리본	30,000	김중성	50,000		
유상숙	50,000	곽완서	20,000		
강진아	20,000	배두성	20,000		
박명호	30,000	이정숙	20,000		
양정하	30,000	형제인쇄.광고	30,000		
최부호	50,000				
오희순	30,000				
유성윤	30,000				
김규태	20,000				
이원호	50,000				
한명현	30,000				
권송은	20,000				
유홍주	30,000				
최창복	50,000				
명청소년소아과	50,000				
박인자	50,000				
이영구	50,000				
조명연	50,000	계	1,220,000	계	1,500,000

여러분의 후원금은 청소년 교화사업에 쓰여집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금은 2025년 12월 19일~2026년 1월 16일까지 입금된 것입니다.

<351-0988-2053-63> 농협(세원아정) 후원금 통장입니다. 원하시는 분 입금 부탁드립니다.

위 내역은 시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자부담 지출입니다.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매주 화요일 : "위기청소년 심리교육" "사랑의 교실" "바리스타 자격증"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수요일 : "위기청소년 심리교육" "자기탐색" "찾아가는 상담교실"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목요일 : "사랑의 교실" "자기탐색" "사회 및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금요일 : "위기청소년 심리교실"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 ◆ 매주 화요일 : "방송댄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수요일 : "음식모형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목요일 :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금요일 : "옥스퍼드 블록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토요일 : "전통디저트 만들기" "기타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 매주 화, 목요일 감시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